

사회

화정주공 조합장 역대 수리 영장 청구

광주지검, 정비업자로부터 뇌물 받아... U대회 선수촌 차질 우려

검찰이 2015 광주주공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이끌고 있는 조합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주·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앞두고 있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22일 "사업 편의를 대가로 재건축 정비업자로부터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한편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비사업체 D사 이모(6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건축 조합장 정씨는 화정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용역을 맡은 D사로부터 용역비 산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주는 대가로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비사업자 이씨는 지난 2007년 D 건설사로부터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비사업자가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총회소집부터, 업체선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조합의 승인을 받아 시공사로부터 용역비를 받는 과정에 비리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주말과 휴일부터 조합장 정씨와 정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정씨가 정비사업체의 용역 편의를 주는 대가로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비사업자 이씨는 지난 2007년 D 건설사로부터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역대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3일 재건축조합 사무

실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한 것은 물론 서구청 관련 공무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업 절차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15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해 5층규모 76개동 2900세대의 현 아파트 단지를 3726가구 규모, 지상 15~33층 35개 동으로 재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원은 2900여 명으로, 연내 이주 및 철거공사 등에 착수해야 2015년 상반기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배구협 상임부회장 3억8000만원 횡령 구속

국가대표 선발때 학부모에게 수백만원 받기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은석)은 22일 "전라남도배구협회 상임부회장 이모(48)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전남도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한국대학배구연맹 등으로부터 받은 대회운영보조금, 전남배구협회 발전기금 등 공금 3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씨는 배구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배입수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배구협회 심판이사, 목포 모태

학 사회체육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전남배구협회 상임부회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전남도체육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한국대학배구연맹 등으로부터 받은 대회운영보조금, 전남배구협회 발전기금 등 공금 3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이씨는 배구국가대표 후보선수 선발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배입수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금품제공 약속 순창군수 후보 징역 2년 구형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21일 출마 포기를 대가로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순창군수 후보 이흥기(무소속)씨와 상대 예비후보인 조동환(순창교육장)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상대 예비후보인 조씨에게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돼 옥중출마했고, 10·26선거에서 민주당 황승주 후보와 맞붙어 96표차로 석패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출마를 포기한 조씨에게 선거운동 보전비용 2000만원과 함께 당선되면 일부 인사와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도가니’ 전자발찌 채울 수 있었다

광주지검 지난 5월 청구... 법원 "위헌 소지" 보류

검찰이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우석법원 시설 원생을 성폭행하려던 관계자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우석법원 생활시설인 인화원 관계자 이모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인화원에서 생활하던 청각장애 원생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200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전자발찌법 제정에 따라 이씨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청구된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판결을 보류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청구된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2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부분 판결이 보류된 상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막

광주지역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2011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22일 광주 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어린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체험프로그램에서 인형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외박 나왔다 자살한 31사단 이병

인권위 "가혹행위 당했다" 인정

지난달 외박을 나왔다 자살한 육군 이병이 부대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날 숨진 김모 이병의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이병의 유족은 "지난 8월 26일 자대배치를 받고 두 달 만에 사망했다"며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부대는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해 다른 중대로 배치했고, 이후 다시 가혹행위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김 이병이 선임병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폭언과 부당한 열차려, 가혹행위에 대해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상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분대장 등 선임병이 김 이병에게 욕설과 규정 외 열차려, 폭행, 폭언을 일삼았고 김 이병의 자해와 자살 가능성을 알고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을 고려할 때 선임의 가혹행위가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이 김 이병을 포함한 이병들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이를 질자대로 보고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했고 대대장은 발생 보고를 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병사의 소원수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대관리도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창틀에 혈흔 남겼다가...

2인조 전원주택 털이범 검거

창틀에 혈흔 남겼다가...

2인조 절도범이 현장에 혈흔을 남겨 경찰에 털미를 잡혔다.

순천경찰은 22일 교외의 전원주택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엄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씨 등은 지난달 5일 오후 1시께 순천시 서면 동산리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타는 등 지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이들은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을 다니며 1명은 땅을 보고 1명은 음식 방범창 등을 톰으로 자르고 침입해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 등은 현장에 지문이나 족적 등을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창문으로 집에 침입하면서 손을 배 창틀에 혈흔이 희미하게 남아 털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시군 경찰서와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檢, 농·축협 5곳 압수수색

가산금리 인상 부당이득 대출비리 수사 본격 확대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이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축협으로 대출비리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2일 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조직적으로 대출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된 군포농협, 의왕농협, 안양농협, 안양축협 등 농·축협 사무실과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IT본부 등 5곳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농·축협 사무실과 IT본부에서 대출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내사를 통해 이들

농·축협이 대출자 등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단서를 포착했다.

이들 농·축협은 가산금리를 떼대다로 높여 농민 등 서민 예금자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그에 연동된 금융기관들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낮아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경감된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춰도 단위농협 같은 여신기관이 가산금리를 높이면 대출금리가 유지되거나 심지어 높아져 대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자혜택이 여신기관의 부당이득으로 남게 된다.

/연합뉴스

복지관서 봉사활동하다 스마트폰 슬쩍

○사회복지관에서 화상실청소, 화분물주기 등의 봉사활동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회복지사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훔친 철없는 10대가 경찰서행.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오모(14)군은 지난 14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정모(여·39)씨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훔쳤다는 것.

○훔친 핸드폰에 자신의 유심카드를 넣어 사용한 오군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이 너무 오래됐고, 친구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써보고 싶어 훔쳤다"며 뒤늦게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 선풍적 인기

밝기는 2배!! ★ 전기료는 절감!! ★ 눈부심 방지로 확실한 시력보호!!

기능성 반사캡 "돈잡는 반디"의 대표적인 특징

1. 쉬운설치, 저렴한 설치비용
2. 가시광선의 전영역을 반사(조명의 질적향상)
3. 최대 50~100%의 조도향상
4. 전기요금 최대 50%절감
5. 눈부심 차단효과로 시력보호기능
6. 자외선 차단효과로 피부노화방지
7. 친환경제품(PP,PET소재로 100% 재활용 가능)
8. 변색이나 오염이 없는 반영구적인 제품

광주,전남 시/군/구

대리점/취급점 모집

www.donbandi.net

(주)우림네트웍스

1599-9093

형광등용

다운라이트용

삼파장용

에코반사캡

DIY세트